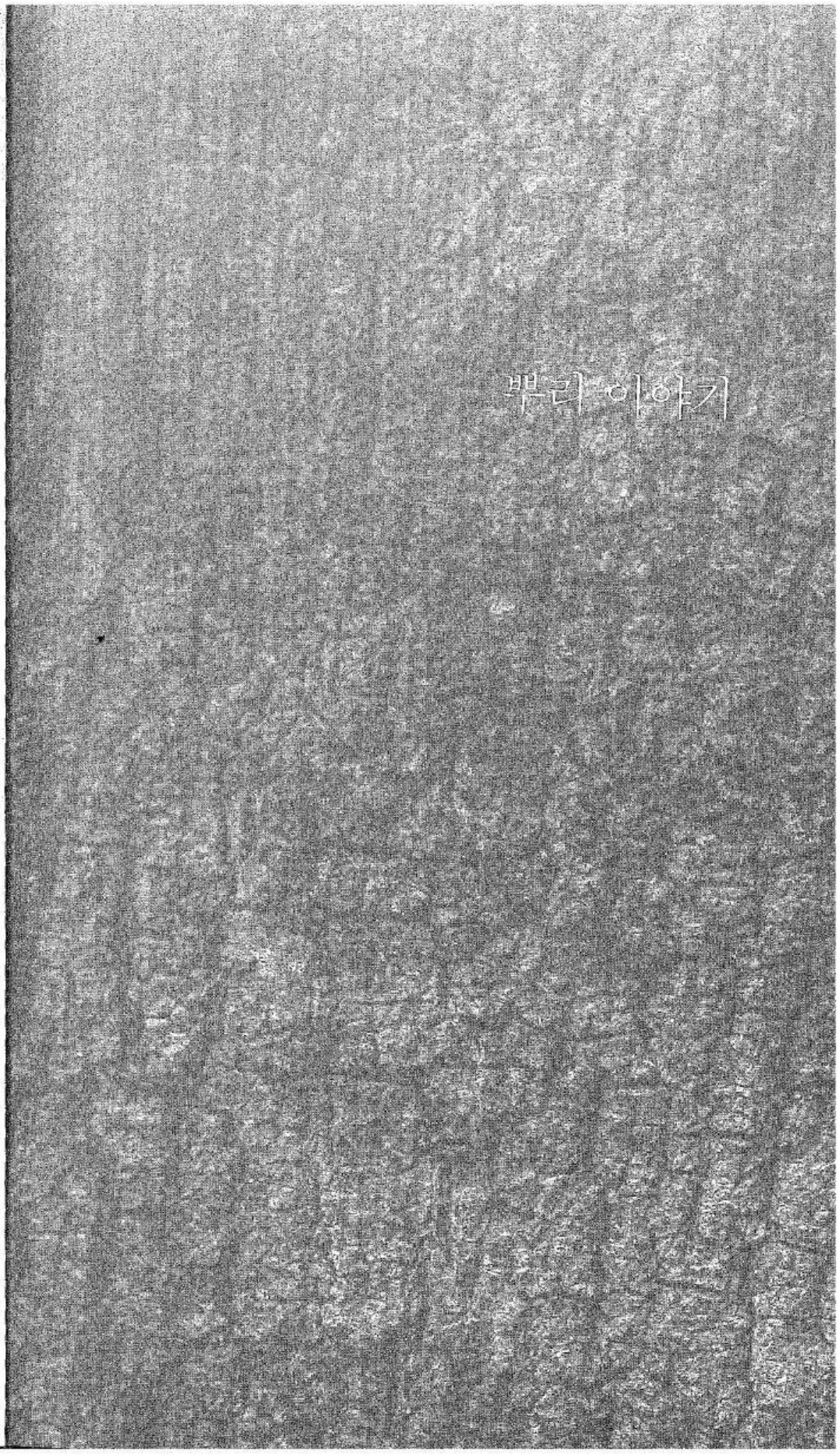


LIVEWORKSHEETS

" 뿌리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 당신 겨드랑이처럼 습한 땅에 내려 물기를 흠씬 머금은 뿌리는 냄새가 짙고 깊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침묵에 잠기게 하는 냄새야……

외피가 웨이퍼처럼 쉽사리 바스러지는 뿌리의 냄새는 뭐랄까, 날벌레떼 같아…… 부산스럽고 삽시간에 흩어져버리지.

아카시아 뿌리에서는 찌르는 냄새가 나. 떫고 쉰 냄새 새새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찌르고 찌르지.

입을 벌리고 냄새를 맡아봐…… 목젖이 진동하도록

LIVEWORKSHEETS

입을 벌리고 뿌리들이 혀로 번져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혀를 장악하고 식도로 미끄러져내려가 갈라지고 번지고 엉키면서 폐, 심장, 간 같은 장기들을 감싸안는 것이……

커튼을 치고 스탠드를 꺼…… 한 점의 빛, 잉어 비늘 같은 빛조차 떠돌지 못하게.

가만, 저건 무슨 빛이지? 저 빛…… 싱크대 쪽에서 떠도는 빛 말이야. 멀티탭 플러그를 빼.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드는군, 회칼처럼 가늘고 길게 벼려진 빛이…… 커튼을 단단히 여며.

입을 벌려…… 더…… 더…… 혀뿌리가 들여다보일 만큼…… 인두를 부레처럼 부풀리고 냄새를 맡아…… 질게 간 먹물 같은 어둠은 냄새에 집중하게 하지.

날이 밝으면 청계산으로 뿌리를 찾으러 갈 거야. 그곳에 가면 굴삭기에 뿌리가 들린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렸을 거라고 하더군. 도로를 놓으려고 산을 파헤치고 있나봐. 그곳에 내가 찾는 뿌리가 있을지 모르지. 내가 그토록 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뿌리가……

LIVEWORKSHEETS

나는 민달팽이처럼 기어서 뿌리에 다다른다. 뿌리 두 가닥이 열십자로 엇갈려 뻗어나가면서 생겨난 움푹한 곳에 얼굴을 파묻는다. 실뿌리들이 소소소 일어 내 이마와 볼을 간질인다. 곁뿌리들이 독기 서린 끝으로 내 목과 어깻죽지를 찔러오지만 얼굴을 더 깊이…… 변심한 애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외설스럽고도 성스러운 곳을 게걸스럽게 탐하듯.

늑골 새새가 들뜨고 벌어질 만큼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 숨에 딸려오는 냄새에 집중하려 애쓰며.

* 날콩의 비릿한 냄새, 냉이의 달고 쌉싸래한 냄새, 덜 익은 자두의 시큼한 냄새…… 가장 끝까지 남는 시큼한 냄새가 날카롭다.

땅속 모든 뿌리가 그의 발치로 뻗어나가는 상상을 한다. 한 올의 실뿌리도 예외 없이. 탈피하는 뱀들처럼 몸부림치면서.

저 뿌리를 봐……

LIVEWORKSHEETS

뿌리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

작년 하지 즈음, 장마전선이 제주 남동쪽 해상에서 소멸하고 대구와 밀양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다. 물이 마른 자국처럼 흐릿하던 내 그림자로부터 슬쩍 비켜난 곳에 그가 서 있었다.

"저 뿌리를 봐…… 라르고largo의 생명력으로 땅속을 장악해갔을 뿌리를…… 관조된 시간이 느껴지지 않아? 뿌리가 땅속에서 일 보步 일 보 미분된 시간을 기록하듯 전진하는 동안, 땅 위 지상으로 뻗은 가지들에는 잎과 꽃이 피었다 지고 열매가 맺혔겠지. 우주를 떠돌던 운석이 떨어지듯 새들이 날아들었을 거야."

"뿌리?"

"거기, 뿌리……"

LIVEWORKSHEETS

"호두나무는 백 년을 살아도 삼 미터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대신에 수평으로 너르게 펼치지. 삼 미터면 당신과 내 거리쯤 되겠군."

"뿌리가 어디 있는데?"

"거기 당신 발아래……"

"아래?"

"아래……"

"아래가 어딘지 모르겠어."

오 년 전 그가 처음 오브제로 선택한 뿌리는 단풍나무 뿌리였다. 그즈음 우리는 육 년째 진전 없는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마흔이 코앞인 내 나이가 이미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기에는 고령이라는 현실을 깨달은 즈음이

LIVEWORKSHEETS

기도 했다. 어머니와 오지랖 넓은 이모들은 조건이 적당한 상대만 있으면 내게 묻지도 않고 맞선 날짜를 잡았다. 그의 작업실에서 처음 뿌리를 본 날도 나는 맞선을 보았다. 제약회사 과장으로, 그해 결혼이 목표라는 남자와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정원수로 심었던 단풍나무 뿌리야."

그가 일러주기 전까지 나는 작업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뿌리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철사 수십 가닥을 마구 뭉쳐놓은 것 같은 그것은 흡사 말벌집 같았다.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수백 마리의 말벌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날아오를 것 같았다.

"땅에 묻기 전에 전족을 하듯 고무줄로 감아놓아서 뿌리가 자유분방하게 뻗지 못했어. 집착하듯 서로를 옭아매며 자라느라 뿌리 가닥들이 가늘고 억세졌어."

LIVEWORKSHEETS

"저걸 왜?"

"마르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뿌리 가닥들이 마르면서 서로를 더 병적으로 옭아매겠지."

그러나 내 눈에 단풍나무 뿌리는 안쓰러울 만큼 충분히 메말라 있었다.

"더 억세어지고, 더 가늘어질 거야, 더 검어지고……"

며칠 뒤 내가 그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을 때 단풍나무 뿌리는 패널 위에 놓여 있었다. 먹빛 패널이 깎아지른 절벽인 듯 그것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다.

"마르면서 뿌리가 짓는 표정이 극적으로 달라지고 있어. 번개가 때리고 지나간 듯 급작스레 바뀐 표정과 마주할 때마다 당혹스러워. 방금 전에 지었던 표정보다 날것이라서."

LIVEWORKSHEETS

*

시큼한 냄새가 열어지고 배후세력처럼 떠오르는 지릿한 냄새…… 마비의 기운을 풍기는 불온하고 수상스러운……

뿌리가 몹시 거대할 것 같다. 육인용 식탁만하던 능수버들 뿌리보다도.

뿌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빛깔을 띠는지, 얼마나 뒤틀리고 휘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원뿌리에서 지파처럼 갈라져나온 곁뿌리가 몇 가닥이나 되는지도.

나는 뿌리를 보지 못했다.

자정 넘어 내가 철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작업실에는 태곳적에나 존재했을 것 같은 짙은 어둠이 들어차 있었다.

뿌리로 더…… 곁뿌리들이 찰나의 시차를 두고 출렁이며 나를 은근슬쩍 밀어내려 애쓰는 게 느껴진다.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영 점 오 밀리미터 샤프심으로 꾹꾹 점을 연달아 찍어 선을 늘이듯 시나브로.

LIVEWORKSHEETS

땅 위 줄기가 가지를 치는 동안 땅 아래에서는 원뿌리가 곁뿌리를 친다고 그는 내게 귀띔해주었다. 잎이 풍성할수록 그 나무를 지탱해주는 것은 원뿌리가 아니라 곁뿌리라고. 대나무 같은 외떡잎식물의 경우 원뿌리는 거의 자라지 않고 실뿌리가 포말이 일듯 부풀어오르는 특징이 있다고.

뿌리로 더 바짝 다가가려는 내 배꼽께를 뿌리 하나가 넌지시 찔러온다. 우엉 굵기의 그 뿌리가 탯줄만 같아 나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잡는다. 뿌리 끝에 자우룩 안개처럼 피어난 실뿌리들이 손바닥을 간질인다.

뾰조록한 뿌리 끝을 손가락으로 더듬어본다. 세포덩어리로, 생김이 골무와 흡사해 뿌리골무로 불리는 조직이다. 땅속에 길을 내면서 뻗어나가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력을 감지해 뿌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작업실이 일산 쪽에 있을 때였다. 그가 구석에 굴러다니던 양파에서 뿌리를 한 가닥 떼어내 내 손바닥 위에 놓더니, 그 끝을 짚어 보이고 말했다.

"뿌리골무야, 이 안에 생장점이 있어. 바늘귀만한 이 작은 점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

LIVEWORKSHEETS

새치 같은 뿌리가 운명을 점치는 손금만 같아 나는 슬그머니 손가락들을 오므렸다.

내 뭉툭한 손톱들이 뿌리골무 같았다. 그를 어루만지고 싶어 보랏빛으로 질리던.

눈꺼풀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것 같은 외피를 혀로 슬쩍 핥아본다. 마르면서 외피는 벌어지고 들뜰 것이다.

*

"저 뿌리가 짓고 있는 표정을 봐."

충북 괴산 과수원에서 찾았다던 사과나무 뿌리였다. 사람으로 치면 암이나 마찬가지인 병에 걸려 고사했다는 사과나무의 뿌리는 궁상스러울 만큼 휑뎅그렁했다.

나는 그에게 '미소 분석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모나리자의 미소에 대해 들려주고 있었다. 미국 모 대학 연구진은 행복, 놀라움, 분노, 혐오, 공포, 슬픔, 그렇게 여섯 가지 감정으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수치화했다. 그 감정들이

LIVEWORKSHEETS

발생할 때 생기는 입의 굴곡과 눈가의 주름 모양을 관찰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그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모나리자의 얼굴에서는 행복감 83퍼센트, 혐오감 9퍼센트, 두려움 6퍼센트, 분노 2퍼센트가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하고 오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83퍼센트나 되는 행복감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17퍼센트를 구성하는 다른 감정들 때문이라고.

"저 뿌리가 짓는 표정을 보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절묘한 표정을 짓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나무뿌리가 아닐까.

저 사과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이려 안간힘을 쓸 때 지었을 표정을 상상해봐. 지상의 가지들이 바람에 흐느적거릴 때 지었을 표정을, 흰 꽃이 다투듯 피어날 때, 열매가 맺히고 붉게 익어갈 때……

저 사과나무 뿌리가 짓고 있는 표정이 마음에 들어…… 나약하지만 섬세한 나르시시즘이 느껴지는 게……

LIVEWORKSHEETS

여섯 가지 감정이라고 했어? 행복, 놀라움, 분노, 혐오, 슬픔…… 그리고 공포였나?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표정이 신비로운 것이 9퍼센트의 혐오감과 6퍼센트의 두려움…… 2퍼센트의 분노 덕분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저 사과나무 뿌리가 짓는 표정이 특별한 건 공포와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일 거야. 33퍼센트의 공포와 19퍼센트의 슬픔……

사과나무 뿌리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 어린, 자조적이고 허탈한 표정에는 42퍼센트의 슬픔과 29퍼센트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나머지 29퍼센트를 채우고 있는 감정은 그런데 행복도, 놀라움도, 분노도, 혐오도 아닌 그 어떤 감정이었다. 내 무딘 감정 해독 능력으로는 도무지 읽어낼 수 없는.

나머지 29퍼센트를 채우고 있던 감정들은 실뿌리처럼 가늘고 희미한 감정들이 아니었을까.

일주일쯤 지나 내가 작업실을 다시 찾았을 때 사과나무 뿌리는 방부액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LIVEWORKSHEETS

"표정이 달라졌어."

"미묘하게."

"나쁜 쪽으로."

그는 뿌리가 적당히 마르면 방부액을 발랐다. 진균류가 번식하고 뿌리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원목 가구에 흔히 바르는 방부액인 컬러스데인을 당신은 을지로 4가 화학약품 전문 상점에서 구했다. 친환경 착색 도료라고는 하지만 화학약품인 그것을 뿌리에 바를 때 당신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았다.

슬픔이 분노를 불러오기도 하나. 사과나무 뿌리가 짓고 있던 표정에서 나는 분노를 읽었다.

*

"손이 떠올라……"

LIVEWORKSHEETS

"까맣게 잊고 있던 손이……"

내가 초등학교 오학년 때 고모할머니가 함께 살기 위해 우리집으로 들어왔다. 스무 살에 시집을 갔지만 애가 들어서지 않아 친정으로 쫓겨 왔고 그뒤로 평생 남의 집 식모로 떠돌아 갈 데가 양로원 말고는 없다고 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고모까지 모셔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내치지 못했다.

살러 들어온 첫날, 저녁 밥상에 올라온 감자탕에서 시래기만 건져 먹던 그녀의 모습이 어린 내 눈에 궁상스럽게 보여서였을까. 나는 그녀가 싫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따로 내어줄 만큼 방이 넉넉하지 않아서 나는 그녀와 한방을 써야 했다. 그녀는 온종일 숨듯 방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한곳에 자리를 잡고는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 있었다. 사실 그녀는 조금씩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그 폭의 차이가 미미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나절만 해도 볕이 드는 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그녀는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 저녁나절이면 문가에 앉아 있었다. 옮겨 앉을

LIVEWORKSHEETS